

전기전자

6월 스마트폰 시장의 위너는 화웨이!

전기전자/미디어 Analyst 김현용
02. 3779-8955
hyunyong.kim@ebestsec.co.kr



News / Issu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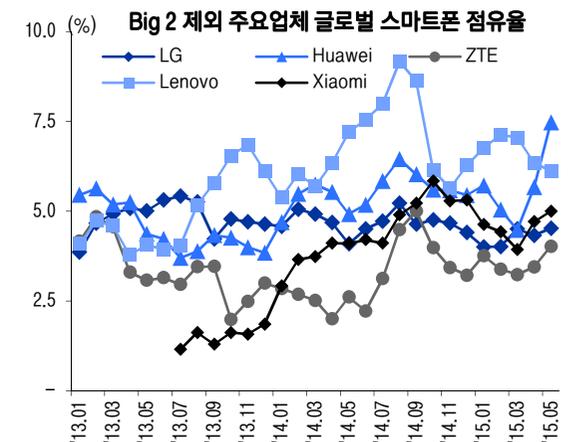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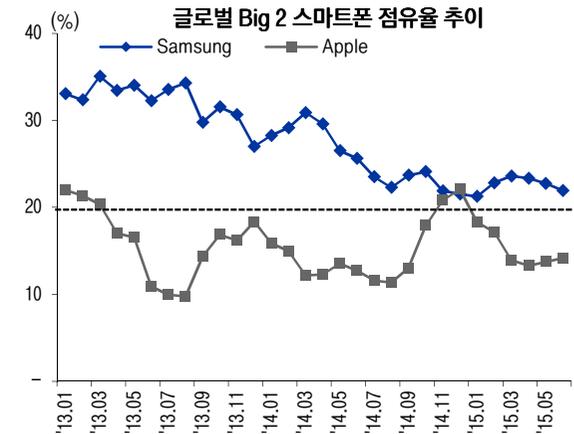
- 6월 스마트폰 시장은 1.19억대(YoY +17.7%)로 2분기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 둔화
- 업체별 YoY 성장률은 화웨이(116%), ZTE(110%), 샤오미(45%), LG(36%), 노키아(35%), 애플(31%) 순
- 화웨이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중국 1위(M/S 20.8%)를 기록, 더불어 미중제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 6.3%로 LG와 레노버를 제치고 사상최초로 3위 기록
- 갤럭시 S6는 6월 780만대(MoM +30%), 2분기 셀스루는 1,990만대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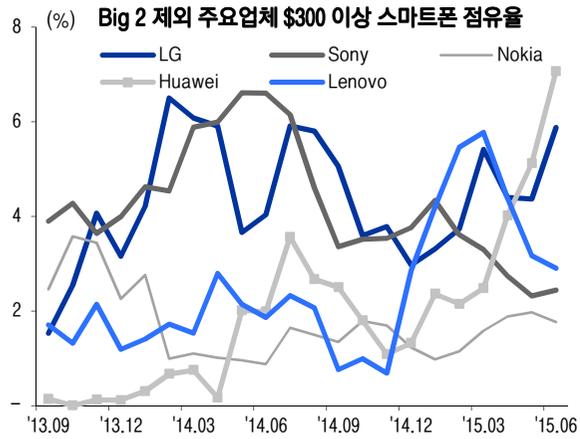
Implication

- 시장 정체 속에서 3위 싸움은 다시 난타전으로 돌입: 화웨이/레노버 우위 & 샤오미/LG 추격
- 중국4대 업체 점유율은 4월 18.7%를 저점으로 6월 22.6%를 기록, 역사적 고점 25.0%('14년 9월)에 근접
 - 중국4대 업체 해외 출하비중은 6월 46%로 가파른 증가세, \$300 이상 스마트폰 비중도 급증 추세
- 삼성은 갤럭시 S6 효과에도 3월 이후 점유율은 줄곧 하락세로 6월 21.9% 기록, 전저점 21.5%에 근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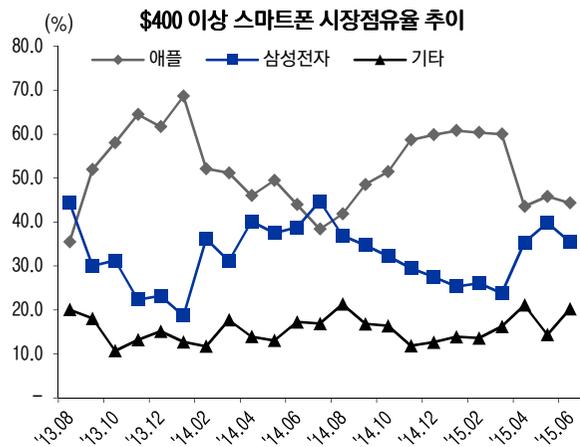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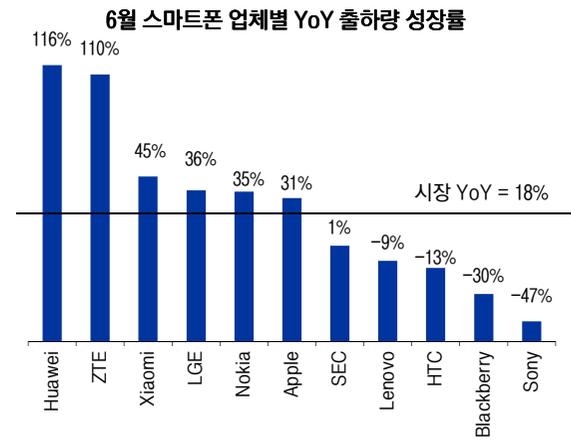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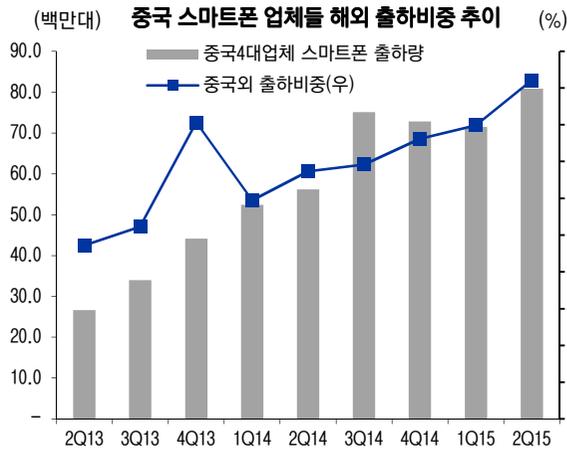
Call

- 갤럭시 S6 2분기 셀스루가 2천만대를 하회하며 하반기 기대감 또한 하향 조정되는 국면, 부품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
- 중국업체들의 해외출하비중 확대, ASP 상승 가속화가 동시에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, 후발그룹 내 경쟁은 여전히 극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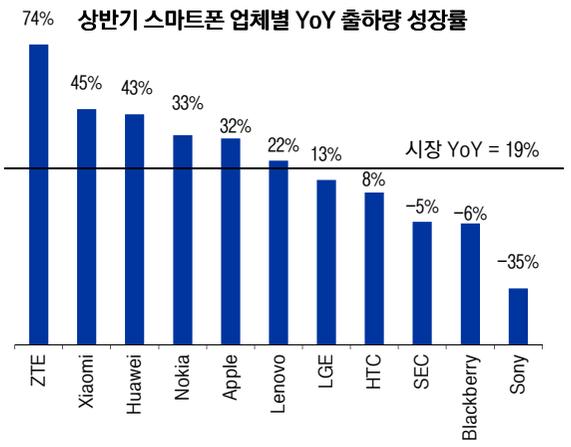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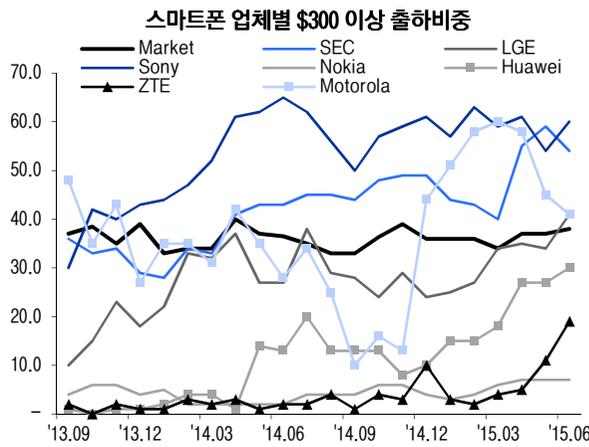




자료: 카운터포인트리서치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

자료: 카운터포인트리서치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김현용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6% 9.4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4. 7. 1 ~ 2015. 6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